

2024 **05**
제232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 02 좋은글, 좋은 시
- 03 대덕물빛축제 성료 인터뷰
- 05 구정소식
- 07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 08 열린의정
- 10 [우리 지역 단체를 만나다] 대전 대덕구새마을회
- 11 대덕톡톡

선 생 님

장근수(시인, 대덕문학회 회원)

5월이 가기 전에
법동소류지에 와서
행복의 맛 좀 보세요

나뭇잎에도
새소리에도
텃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이 물들어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도 들리지 않지만
바람소리 춤추는 모습 보면
행복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 5월이 가기 전에
해가 뜰 때쯤
법동소류지에 오면
행복의 맛을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꼭 오세요.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4년 5월 7일(제 232호)

* 대덕라이프에 게재되는 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봄꽃 향기가 절정을 이뤘던 4월이 가고 계절의 여왕이자 신록(新綠)의 계절 5월이 활짝 열렸습니다. 특히,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 날 등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의달’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가족 형태나 생활 모습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정’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주는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덕구는 앞으로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족 구성원을 함께 돌보고 건강한 가족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들 간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 가득한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청장

2024 대덕물빛축제

축제와 관광으로 대덕의 문화 가치를 높인다

대전 대덕구의 대표축제 ‘2024 대덕물빛축제’가 3월 29일 루미페스타 점등식을 시작으로 △4월 13~14일 개막식·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5월 5일 어린이 페스티벌 △5월 6일 호 콘서트·폐막식을 끝으로 3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2024 대덕물빛축제’는 이현동 고래골 설화 스토리 북 발간, 고래 테마 경관조명길 조성 등 고래 관련 콘텐츠를 대폭 강화 하는 등 축제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덕라이프 편집자는 최충규 대덕구청장을 만나 이번 축제 이야기와 관광형 문화축제의 의미, 향후 관광산업 육성 계획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마다 축제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대덕구는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축제는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편적으로 축제는 ‘주민화합형 축제’와 ‘도심 소비 촉진형’, ‘농어촌 생산물 판촉형’ 그리고 ‘문화예술진흥형’ 등 형식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달성케 한다. 대덕구에는 주민화합형 축제 △12개 동별 마을 축제 △대덕구민의 날 축제 등이 있다. 또, 도심 소비촉진형 축제로는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이 대표적이며, 문화예술진흥형으로는 역사성에 기인한 동춘당 문화제가 있다.

특히, 대덕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형 문화축제’이다. 대덕물빛축제와 대청호마라톤대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축제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을 때 더욱 가치 있게 준비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대덕구는 각각의 컨셉에 알맞게 다양한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축제를 통해 우리 대덕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주민이 즐거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표축제인 대덕물빛축제가 관광형 문화축제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우리 대덕구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대청호와 계족산이 위치해 있다. 대덕구를 나타내는 심볼마크에도 대청호와 계족산을 이미지화해 사용할 만큼 대덕구의 자랑이다.

이러한 대덕구의 자원을 활용해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광산업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관광산업이 인프라 확충과 홍보로는 한계가 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홍보비를 쏟아부어도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다.

우리 대덕구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축제에 주목했다.

축제라는 이벤트를 통해 ‘대덕구’라는 지역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결국에는 관광산업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덕물빛축제’는 관광형 문화축제로서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지?

첫 번째는 컨셉이다.

대덕물빛축제는 ‘고래’를 컨셉으로 기획된 축제이다. 대덕구 이현동의 고래설화를 모티브로 기획 함으로써 전국적인 호기심 유발 및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했다. 특히, 기획의 확대를 위해 고래 컨셉의 동화책을 발간하고, 주제를 만드는 등 프로그램 발굴 이외에도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두 번째는 축제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축제는 3~5일 정도의 기간에 진행된다. 대덕물빛 축제는 지난해의 경우 31일, 올해는 39일간 축제를 진행했다. 바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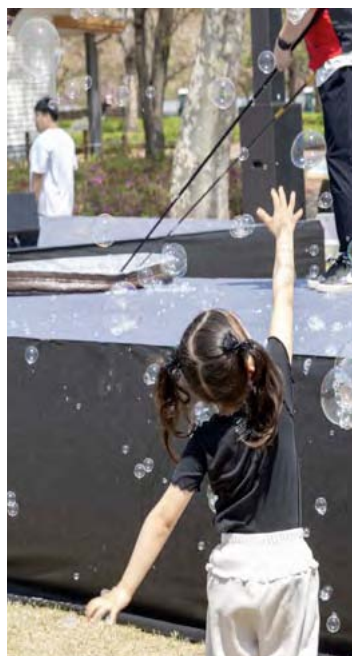
비슷한 홍보예산으로 단기 행사에 투입하는 것보다 축제 시작 전 2개월 포함해 약 3~4개월간 축제를 통해 대덕을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이러한 홍보는 단지 단순한 축제 홍보를 넘어 대덕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도를 견인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행사구성이다.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효콘서트, 어린이 페스티벌 등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 방문을 촉발시킴과 동시에 루미페스타와 프린지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꿈이지 않게 운영했다.

또, 지역 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축제 기간 다양한 행사를 유치 함으로써 축제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관광객 확대를 도모했다.

이러한 차별화는 축제의 성공은 물론 관광객 유입도 확대했으며, 결국 우리 대덕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치의 축적이 지속적인 ‘문화 대덕’, ‘관광 대덕’을 확대 재생산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다면 축제의 성과는?

지난해에는 대덕물빛축제를 기획하고 첫선을 보였음에도 전국에서 63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역대 최대의 성과를 얻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 ‘2024 제12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콘텐츠축제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2023년 전국에서 열린 축제 중 지역의 문화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축제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시상식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축제를 심사하고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이해관계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인정받는 매우 권위 있는 상이다. 대덕구는 지난해 천혜의 자연환경인 대청호에서 고래를 테마로 삼은 여수바위 설화를 바탕으로 대덕물빛축제를 개최해 차별성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공로를 인정받아 축제 프로그램 분야 특별상을 받았다. 지난 5월 6일 효콘서트와 폐막식 등 축제가 막 끝난 상황이라 최종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관람객이 많이 늘어나 역대 최대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축제 이외에 관광 대덕을 위한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했듯이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키우기 위해선 체류형 관광 인프라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대덕구는 관광 프로그램 신설과 함께 중·장기적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다.

대덕구는 물론 대전시 공약사업이기도 한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는 계족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대전을 중부권 최고의 산림복지휴양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주차장 등 제반 인프라 시설은 지난 4월 완료했으며, 시비 등 예산 확보를 통해 본격 조성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산림치유·휴식 공간, 숙박하며 체류가 가능한 시설 등의 사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민선8기 공약사업인 ‘새여울물길 30리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인 대청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설계용역 △환경·재해 영향 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가 진행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해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2023 대덕 시티투어 - 대덕 고래(Go來)여행’은 지난 4월부터 △1코스 생태 힐링코스 △2코스 선비문화클러스터 인문학 탐방 등 오는 10월까지 총 15회 진행될 예정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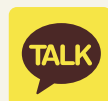
중점사업과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오면서 거둔 성과도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연축 혁신도시 조성, 대전산단 대개조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 새여울물길 30리 프로젝트 등 구민들에게 약속한 민선 8기 공약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그간 대덕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던 신대지구 디지털 물산업 밸리 조성사업이 연내 본격 추진되는 것은 물론 스리틀돔 야구장 건립 △대전시, 대전 대표도서관 오정동 건립 확정 발표 등 새롭게 부각한 개발사업들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세 고지서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알림 서비스 시행... 종이 송달 대비 43.5% 예산 절감 기대

대덕구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지방세 고지서와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방세 고지서의 경우,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의 전달까지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카카오톡 알림톡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접속 후 ‘카카오페이’에서 ‘청구서’ 페이지에 접속해 ‘지방세’를 누르고 서비스

동의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세외수입 체납자, 환급금 안내문 등 세무 행정 전반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돌봄 배우러 왔습니다” 대덕구 돌봄건강학교 벤치마킹 줄이어

건강·돌봄·정서 안정 등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호평’
제주도·경기도 부천 등 전국서 방문… 관련 교육도 잇따라

대전 대덕구돌봄건강학교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대덕구의 특화사업인 대덕구돌봄건강학교는 지역 내 거주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돌봄 욕구 충족 및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노인 친화형 멀티플렉스(multiplex)’ 공간을 마련, 다양한 건강·돌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돌봄건강학교는 대덕·중리·법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의 거점복지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구는 △공유주방 및 카페 △상담실 △놀이터 △교육실 등 각 특성에 맞는 공간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와 운동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의료 및 건강·돌봄 욕구 증가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통합상담실과 힐링 테이블, 공동식사를 운영해 어르신들이 함께 배우고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에 대덕구의 우수한 돌봄사례를 배우고자 3월 22일 제주도 등 6곳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내방했으며, 3월 27일에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대전지회의 요청으로 돌봄건강학교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4월 17일 경기도 부천에서 돌봄건강학교를 벤치마킹하고자 대덕구를 방문했다.

대덕구청장은 “21세기형 어르신 이용시설인 ‘대덕구돌봄건강학교’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내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지난 2023년 ‘노인 의료·돌봄사업 통합지원 시범도시’로 선정돼 대덕구·돌봄건강학교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 스마트제설기 활용해 보도·빗물받이 청소한다

제설 장비에 고압살수기 장착

비점오염원 투수블록 교체 구간 중심 청소 나서
투수 기능 회복·먼지 저감 등 그린뉴딜 ‘앞장’

대덕구가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2022년 도입한 스마트제설기를 활용, 지역 보도블록과 빗물받이 청소에 나섰다.

구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7억9000원을 투입, 2023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일부 노후 보도(6.6km)를 투수블록으로 교체·정비했다.

투수블록은 보도에 물이 넘치거나 고이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성 포장재로, 표면에 빗물을 흡수하는 틈새가 많아 이물질·미세먼지·낙엽 등으로 막히면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구는 투수블록의 투수 기능 회복 및 그린뉴딜 정책에 앞장서고자 스마트제설기에 고압 살수기를 장착해 비점오염원 투수블록 교체 구간을 중심으로 고압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스마트제설기 활용 방안은 제설용 염수분사장치에 빗물 탱크를 별도 설치해 폭염 시 빗물 분사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겨울철 이후 방치될 수 있는 제설 장비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구는 이번 청소를 통해 여름철 온도와 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 및 장마철 침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걸어서 대덕속으로

📍 은진송씨 정려각

대전 대덕구 계족로 598번길 11(법2동 205-5번지)에 위치한 은진송씨 정려각은 조선 중기의 문신 김경여(1596~1653)의 어머니 송씨 부인의 정려기(旌閭記)를 보관하는 건물로 지난 1993년 6월 21일 대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정려(旌閭)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효자·충신·열녀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풍습을 말한다. 효성이 지극했던 송씨 부인에게 영조 때 명정(命旌)된 정려기를 보존하기 위해 세워졌다.

건물의 구조는 장대석으로 기단을 쌓고 그 위에 짙막한 사각 모양의 주춧돌을 놓았다. 이어 그 위에 다시 위쪽만 8각 단면으로 깎은

네모꼴의 긴 주춧돌을 놓고 짧은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조선 후기의 양식을 띤 무출목 이익공계로 돼 있으며, 옆쪽과 뒤쪽의 창방 위에 장화반(長花盤)을 1구씩 배치해 건물의 화려함을 더했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며, 경주김씨 송애공파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편, 김경여는 이귀(李貴)의 사위이자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1633년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대사간, 충청도 관찰사, 부제학을 지냈다.

<참고자료> 대덕 역사·문화 관광포털 및 대덕 관광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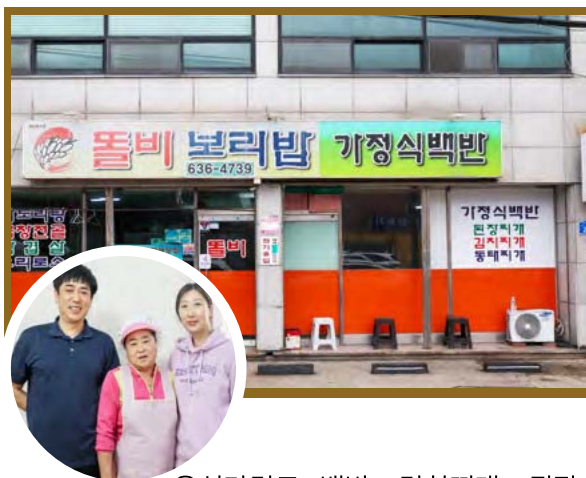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제철 나물 가득한 동네 백반 맛집 중리동 **뽕비식당**

-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129번길 24 / 042-636-4739
- 백반·김치찌개·된장찌개·청국장 8000원,
묵은지 참치찌개 8000원(2인 이상)
토종닭백숙 5만 5000원, 곰창전골 3만원,
동태찌개 2만 5000원
- 영업시간 : 11:30~21:00(브레이크 타임
13:30~16:30) / 매주 일요일 휴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한 상이 차려져 나오는 동네 백반 맛집의 가장 큰 장점은 반찬이다. 싱싱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만든 다양한 반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골목 가정식 백반전문점 '뽕비식당(대표 하수완)'은 맛은 물론 가격도 뛰어난 맛집이다.

대표 메뉴는 매일 매일 바뀌는 국과 반찬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백반이다. 냉이된장국, 건새우 아욱국, 된장시금치국 등 제철 채소류를 사용한 국은 그야말로 인기 만점이다. 여기에 마른파래무침, 양념감자조림, 잡채, 들깨버섯볶음, 양념명태조림, 소시지볶음 등 반찬 하나하나 모두 정성 어린 손맛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칼칼한 김치찌개와 구수한 맛이 일품인 된장찌개와 청국장도 인기 메뉴로 자리잡고 있다.

음식가격도 백반,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묵은지참치찌개(2인 이상) 등이 8000원으로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를 넘어 '갯성비'를 선보이고 있다.

또, 자연산 버섯전골, 닭볶음탕, 곰창전골, 동태찌개 등에 두부, 고기, 양념 등 모두 재료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3~5만원의 가격에 푸짐하게 제공함으로써 저녁 시간 애주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줘도 남는가 싶은 정도지만 찾아주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것이 보람이라는 하수완 대표는 "주방을 맡고 계신 어머니(김상례씨)의 손맛과 정성, 신선하고 정직한 재료 사용이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손님들의 사랑을 받은 비결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찌개와 전골요리 등에 들어가는 육수는 제대로

우려낸 사골만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생선·육류 등은 인근에 있는 거래처를 통해 매일매일 신선한 것으로 구입한다. 또, 시골에 있는 처가댁과 지인들을 통해 품질 좋고 신선한 재료를 저렴하고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반찬 구성 및 원가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특히, 제철 나물 밑반찬들은 시중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들거나 양에 비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뽕비식당'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이자 최대 강점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의 손맛을 틈틈이 전수 받고 있다는 하수완 대표는 "손님들의 사랑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손님들이 한 상 가득 차려진 푸짐한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엄마 손맛이 생각나는 백반 맛집 중리동 **'형이랑 아우랑'**

- 대전 대덕구 중리동로 17번길 / 042-639-5556
- 닭볶음탕 5만원, 곰창전골 3만원, 제육볶음·오삼불고기 1만 2000원(2인 이상)
짜글이 1만원, 김치찌개 8000원, 동태탕 1만원(2인 이상)
- 영업시간: 10:00~22:00 (브레이크타임 15:30~17:00) / 연중무휴



수많은 음식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 속 '집밥'으로 통하는 가정식 백반은 여전히 우리네 식탁의 주류(主流)다.

뜨끈한 밥과 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함께 어우러진 백반 상차림은 내놓는 이도, 먹는 이도 하루를 살아가는 든든한 힘이 된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 가구특화거리 첫 골목에 있는 '형이랑 아우랑(대표 이태희)'은 엄마표 밥상이 간절히 그리울 때 주저 없이 찾아갈 수 있는 백반 맛집이다.

이 집은 외관은 물론 내부 인테리어도 1970~1980년대 학사주점처럼 옛날 감성이 흠뻑 묻어난다. 그래서인지 곰창전골, 짜글이, 김치찌개 등 기본 식사 메뉴는 물론 안줏거리인 더덕구이, 홍탁,

파전 등도 메뉴판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매일매일 다른 반찬과 국을 제공하는 백반과 점심 특선 메뉴로 2인 이상 주문해야 하는 짜글이, 김치찌개, 동태탕 등이 있다.

특히, 콩나물무침, 마늘종, 김자반, 겉절이, 젓갈, 제철 나물류 등 총 9가지 밑반찬으로 손님들의 구미(口味)를 한껏 자극하고 있다.

맛과 양 그리고 8000원~1만원대의 가성비 좋은 착한 가격 때문인지 동네 주민들은 물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점심시간에는 적잖은 웨이팅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의 자리에서 12년 등 총 30년 음식점 운영 경력의 베테랑인 이태희 대표는 최고의 식재료 사용

과 정성이 음식 맛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치, 반찬, 양념장 등 모든 음식의 맛은 '간'에서 나옵니다.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간을 찾아 레시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곳의 모든 음식은 한결같이 간이 맞다는 게 손님들의 반응이다. 참으로 대단한 미각이 아닐 수 없다.

이태희 대표는 "제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손님상에 내놓고 있습니다. 손님들 역시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지요"라며 "더욱 정성스러운 손맛으로 든든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굳은 다짐을 전했다.



제9대 대덕구의회 전반기 소회와 후반기 다짐

제9대 대덕구의회 출범과 함께 구민을 향해 힘찬 포부를 밝힌 바 있는 의원들의 임기도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의원들은 그동안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변하고 전달하는 ‘대덕구 대변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더 잘 할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의원별 소회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김홍태 의장

소회 의장이라는 직함에 맞게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자세에 임했다. 특히 동료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 이 과정에 함께 발을 맞춰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짐 유일한 재선 의원이자 최연장자로서 동료 의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모범을 보일 것이다. 또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오직 구민을 향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조대웅 의원

소회 대덕구의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아들 처럼 손자처럼 낮은 자세로 구민분들을 잘 모시려고 했다. 구민분들의 질타에는 개선을 위해, 칭찬에는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 또 노력했다.

다짐 더 많은 구민분을 만나 소통하며 지역에 필요한 내용이나 민원 등을 잘 해결해 지역 전체적인 발전에도 힘쓰겠지만, 동네 구석 구석의 민원 해결과 골목경제 발전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박효서 부의장

소회 늘 낮은 자세로 구민 한 분 한 분을 섬기며, 구민의 목소리에 화답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 왔다. 구민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외부인이 아닌 더 나은 대덕구를 위한 구성원으로서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다짐 현실정치에 뛰어들 지 2년이 다 되어 간다. 더 전문적이고 더 능동적인 자세로 구민의 요구에 화답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또한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



이준규 의원

소회 2년이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돌이켜 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었다. 부족한 것을 채워 더 나은 대덕구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많이 배웠다. 지지와 응원을 해주신 구민들께 감사를 드린다.

다짐 앞으로도 구민만을 위해 일하는 멋진 대덕구원이 되려고 한다. 의원 배지를 달면서 느꼈던 무한한 책임은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유시유종(有始有終)’의 각오로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



전석광 의원

소회 전반기 경제도시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새로 새겼다.

다짐 더 많은 구민과 소통하려 한다. 모든 구민을 만나보겠다는 각오로, 대덕구의회 대변인으로서 역할에 역점을 두겠다. 구민들의 선택에 부응하기 위해, 자량이 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다.





김기홍 의원

소회 민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놓치고 있는 행정·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나눌 수 있었는데,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큰 자양분이 됐다고 자부한다.

다짐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뿐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생각해, 구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민생 조례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양영자 의원

소회 구민들의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한 기간이 아니었나 되돌아본다. 작은 민원, 큰 민원 따로 두지 않고 모두 구민들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섬기며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에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다짐 대덕구의회에 들어오기 전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들였었다. 우리 이웃을 위한 나의 결심이자 실천이었다.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을 위한 봉사'란 초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잊지 않도록 노력, 또 노력하겠다.



유승연 의원

소회 지난 2년이 마치 두 달처럼 쏜살같이 지나온 것 같다. 쉴 틈 없는 의정활동에 지치고 어려운 일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구민을 위해 일하는 대덕구의원으로서 부족한 건 없었는지 오히려 아쉬움이 더 크다.

다짐 더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구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복리 증진과 민생경제 제고에 역할을 하겠다. 또 임기가 끝날 때쯤 대덕구의원으로서 부끄럼 없도록 오직 대덕구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기고

대전·충남 혁신도시계획 정상화 필요



전석광 의원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쓰여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부여한 셈이다. 정부는 과거 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3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논의에 나섰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2007년 10개 혁신도시 지구를 지정하고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 했다.

대전 연축지구도 2020년 10월 '2기 혁신도시'로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선정 뒤 3년 반이 지나도록 대전으로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은 전무하다. 현재까지 이전을 확정된 공공기관조차 없다. '무늬만 혁신도시'로 희망 고문만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필자는 조속한 2기 혁신도시 진행을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로드맵을 하루 빨리 제시 해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 목적은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 혁신 역량을 제고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격차는 2019년 2000명에서 역대 최대인 70만 명을 넘어섰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로의 인구 재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이전 공공기관 선정 시 '우선 이전 선택권'을 고려해야 한다. 대전은 세종시 출범을 이유로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 대상에서 배제돼 도시발전 과 인구 유입 기회를 박탈당했다. 또 세종으로 인구가 유출돼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후발주자로 출발한 만큼, 기존 혁신도시와는 균형을 맞추고 비혁신도시와는 차별성을 뒤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대덕구는 지방소멸위험지수 0.594로 인구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대전시 동·중구와 함께 인구 위기 관심지역에 포함돼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받았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은 너무도 자명하다. 정부는 연축지구 등 2기 혁신도시 추진을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지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고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과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대전 대덕구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4개 단체 구성...

지도자 893명·회원 1만 2000명 활동

‘근면·자조·협동’ 새마을정신 바탕

지역사회 도움 필요한 곳에 봉사 이어가

박광수 회장 “국민 필요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과 배려로 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에 쫓기듯 살아가기 때문일까, 때론 그 사실을 잊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노력’과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타적(利他的)인 삶’을 추구하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대전 대덕구새마을회(회장 박광수·이하 대덕새마을회)가 바로 그 단체다.

40대 중반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새마을운동’에 대해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오늘까지 54년 동안 근면(勤勉), 자조(自助), 협동(協動) 등 3대 정신을 바탕으로 멈춤 없이 달려왔다. 또,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위상 및 회원들의 자긍심도 한층 높아졌다.

1984년 3월 10일 출범한 대덕새마을회는 지난 40년간 지역사회 곳곳에서 굵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의 손길을 펼쳐오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대전 대덕구 오정네거리 인근 새마을회관에 위치한 대덕구새마을회는 지난 1월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광수 회장을 필두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양승재) △새마을부녀회(회장 안귀숙) △새마을 직·공장협의회(회장 오세은) △새마을문고회(회장 김정화) 등 4개 산하 단체로 구성돼 있다.

대덕구새마을회는 40년의 긴 역사만큼이나 2024년 4월 말 기준 893명의 지도자와 1만 2000명의 회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다.

특히, 대덕구의 핵심 가치인 △사람 △환경 △도시재생은 물론 새마을운동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명운동 △상생과 통합의 평화운동 △사회적자본 확충의 공동체 운동 △연대·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지구촌새마을운동 등을 대덕구에서 꽃피우기 위해 숭선수범의 자세로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박광수 회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4개 산하 단체는 각자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나눔, 배려, 연대 정신’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난 극복의 DNA이자 세계적 모범이 된 새마을운동 정신이기 때문이지요”라고 설명했다.

우선 대덕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양승재)는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통안전 캠페인 △배수로 등 취약지역 방역활동·안전지킴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취약계층 태극기 전달 등 지역의 어려운 일, 힘든 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있다.

‘녹색 조끼를 입은 천사’로 불리는 대덕새마을부녀회(회장 안귀숙)는 지역 12개 동 총 396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홀몸노인들과 새마을



박광수
대덕구새마을회 회장



양승재
대덕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안귀숙
대덕구새마을부녀회장



오세은
대덕구새마을직장공작협의회장



김정화
대덕구새마을문고회장



부녀회원 간 1:1 결연을 통한 돌봄·섬김 봉사 ‘새마을머느리 봉사대’ 운영 △다문화 가정과의 아름다운 동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덕구에서 자영업·기업체 등을 운영하는 분들로 구성된 직장·공장새마을협의회(회장 오세은)는 △집 고쳐 주기 운동 △환경정화 운동 △취약계층 가정 장학금 전달 등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

이밖에 대덕새마을문고회(회장 김정화)는 △독서캠페인·숲속의 문고 운영 △역사문화 바로 알리기 활동 △동별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덕구새마을회 리더들인 이들은 “봉사는 습관”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박광수 회장은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해 할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라며 “이를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몸에 밴 습관이지요”라고 강조했다.

안귀숙 대덕구새마을 부녀회장은 “저의 시간을 쪼개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자체가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라며 ‘봉사 예찬론’을 펼쳤으며, 김정화 대덕새마을문고 회장 역시 “다른 집 아이들을 위해 시간과 열정을 쏟을 수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에게 봉사는 삶의 활력소입니다”라고 언급했다.

박광수 대덕구새마을회장은 올 한 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 활성화 △회원 간 단합 및 유대관계 강화 △청년 새마을연대 &대학새마을동아리 등 세대 간 화합을 위한 노력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대덕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조직, 대덕구민에게 꼭 필요한 단체가 되도록 가일층(加一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시행

- 대 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기 간** 4. 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신청
- 시술기관**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시술 및 비용 선납부 → 보건소 방문 신청 → 시술비 지급
- 문의사항** 대덕구 보건소 건강정책과 ☎042-608-5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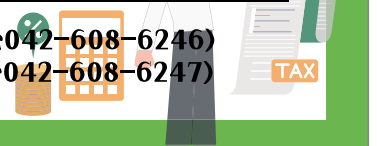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024. 4. 1. ~ 6. 30.(3개월)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시
 -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 관허사업의 허가·인가 면허 취소 또는 제한
- 납부방법

구 분	방 법
이체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ARS 납부	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 안내
인터넷 납부	위택스(지방세) https://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https://www.giro.or.kr
금융기관 방문	금융기관 ATM기 이용하여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 고지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문의 : 대덕구 세원관리과 지방세 (☎042-608-6246)
세외수입 (☎042-608-6247)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 대 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기 간** 4. 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가임력 검사 비용 한도 내 실비 지원
▲ 여성 13만원: 난소기능검사(KAMH), 여성 생식기 초음파
▲ 남성 5만원: 정액검사 등
- 검사기관** 관내 2개소(새아산부인과, 성모자애산부인과) 및 전국 참여의료기관
※ 관외 참여 의료기관 현황은 e보건소에서 확인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문서24: 법률혼, e보건소: '24. 7.-)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상담 → 비용 선납부, 후청구
- 문의사항** 대덕구 보건소 건강정책과 ☎042-608-5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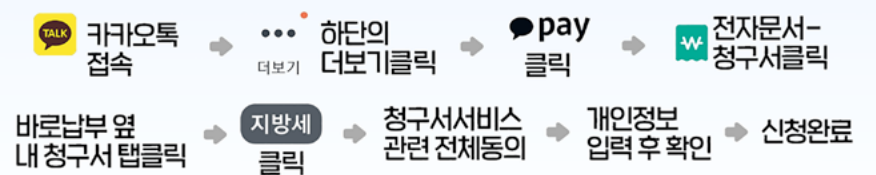


세액공제 혜택과
알림서비스를 동시에!

카카오페이 자동차세 전자고지 신청하고 편하게 알림 받으세요.

대 상 과세대상 자동차를 보유한 모든 등록원부상 소유자

카카오페이 전자고지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카카오페이 전자고지신청방법 참조

문의전화 대덕구세원 관리과 ☎042-608-6248



임산부 건강교실 모집 안내 “행복한 기다림” 행복한 임신 · 건강한 출산을 응원합니다

- 대 상**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및 수유부 *신혼부부도 가능
- 장 소**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 2층 프로그램실
- 내 용**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4주간의 체험형 강의 (태교 및 출산, 신생아 관리, 산후관리, 모유수유, 태교 공예)
- 모집기간** 2024년 4월 ~ 모집완료 시까지
- 신청방법** 전화 또는 방문접수 (선착순 모집)
- 문의사항**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팀 ☎042-608-5484, 5408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 지원대상 기준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1%~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문의처 : ☎ 1522-3690





대전대덕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가정통신문

대덕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가족(지인)·금융기관·검찰청을 사칭한 피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문자 무조건 피싱사기입니다!!

자녀

엄마! 바빠? 나 00인데 휴대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인종이 안돼서 그러는데 보내주는 링크 들어가서 앱 좀 설치해줘!
<http://자녀사칭.co.kr>

주의!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입니다.

카드결제

[국제발신] 고객님의 승인번호(5***7) 해외결제 968,000원 정상처리 완료(본인 아닐 경우) 문의: 02-1234-5678

주의! 결제 사칭 보이스피싱입니다.

택배

[Web 발신] [00택배] 고객님의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배송정보 수정 <http://택배사칭.co.kr>

주의! 택배 사칭 보이스피싱입니다.

대출대출

[Web 발신] (광고) 00은행 정부지원 저금리대출 - 고정금리: 3% - 지원예산: 3조 신청방법: 070-1234-5678

주의!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런 전화 무조건 피싱사기입니다!!

금융기관

00은행인데요, 저금리 대환대출해드립니다. 신용등급 높아야하니 기존 대출금과 수수료를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세요

검찰청

△△검찰청 송00경사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셔야 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100% 보이스·메신저피싱입니다.

소중한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금융사기 예방 QR코드를 전송해주세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82**(민원상담)에 신고하세요!

대덕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 대 상 : 19세 이상의 성인

● 운영 장소 및 시간 :

- 대덕구보건소 1층 연명의료 상담실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3층 상담실 목요일 예약시간
(상황에 따라 요일 변경될 수 있음)
-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예약 전화 후** 신분증을 지참(본인 확인)하여

대덕구 보건소 또는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 등록절차 :

- **본인 확인** (전화 예약, 신분증 지참, 대덕구 보건소 또는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 ↓
- **상담 및 작성** (1:1 상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 상담자의 안내에 따라 작성)
- ↓
- **등록 및 효력 발생**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연명의료결정법 문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문 의 : 대덕구보건소(608-5443)
대덕구치매안심센터(608-4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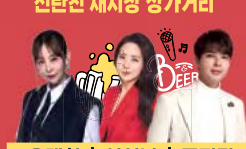
대덕거리 맥 2024 주 페스티벌

5월(금·토요일) 17:00~22:00

각 장소별 2회(6회)

5. 3.(금) - 4.(토)

신탄진 새시장 상가거리



윤대화 | 신이나 | 류지광
외 인기가수공연

5. 10.(금) - 11.(토)

중리행복길 일원



영기 | 이지효 | 스페이스A
외 인기가수공연

5. 17.(금) - 18.(토)

비래동 행정복지센터 앞 일원



박서진 | 김현정 | 김지현
외 인기가수공연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주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관  공공기관 상인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지원

예방접종 꼭! 받고 건강챙기세요!

접종기간 연중(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대상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23),
1회 지원 **선착순**

접종기관 관내 위탁의료기관 62개소 및 전국 위탁의료기관
✓위탁의료기관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